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2년 4월 제 **121-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많은 기쁨 나눠주셨어요” 선우 경식 선생 14주기-강칼라 수녀의 회고



전북 고창의 호암 마을에서 한센인들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이탈리아 출신 강칼라 수녀(80). 칼라 수녀는 서울 봉천동과 영등포 지역에서 살 때 노숙인과 결혼 가정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지금도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올 초 고창에서 다시 영등포 수녀원으로 올라온 그를 만나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원장에 대한 회고를 들어보았다.

본원 개원 초인 신림동 시절, 봉천5동에서 활동하던 칼라 수녀는 본원 봉사자로 활동하며 수시로 가난한 환자들을 데려와 선우 경식 원장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어 개원 10년 뒤 신림동에서 영등포로 이전했을 때는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뒤편 수녀원에 거주하며 병원 근처 노숙인

선우 원장이 요셉의원을 이끌 당시의 사진들. 왼쪽 위는 본원을 방문한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과 함께. 왼쪽 중간은 새 사제로부터 안수받는 모습. 아래는 모친 손정복 여사와 집 정원에서. 사진 오른쪽 위는 이발 봉사자로부터 이발 받는 모습. 아래는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장례미사.

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칼라 수녀는 선우 경식 원장에 대해 “한 마디로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고 회고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우 원장님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강칼라 수녀 선우 원장 회고



선우 원장 추모미사 강론



쪽방촌 향기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국성회 소식





본원 홍근표 신부와 요셉의원 현관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본원 매일미사에 참석한다.

를 선우 원장님께 드렸다면 선우 원장님은 그런 은혜에 힘입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많은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성격 강하지만 넓은 마음 가진 분”

그에게 선우 원장은 성격이 아주 강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넓은 마음을 가진 분으로 각인돼 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들여셨어요. 자비롭고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지고 묻고 하기보다 먼저 그 심정을 이해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셨지요. 선우 원장 본인도 그렇게 노력하셨겠지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라 수녀는 선우 원장의 폭넓은 포용력과 인내심 그리고 적극성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하나는 지금은 고인이 된 실존 인물로, 선우 원장이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여기고 보살폈던 안근수 씨다.

“요셉의원이 신림동에 있을 때 다리 밑에서 기거하던 그 노숙인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들어와서 노래를 하면서 휘젓고 다니곤 했어요. 직원들에게는

무척 화가 나는 일이었지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선우 원장은 그런 사람에게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술을 끊게 하고 정상인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했어요.”

요셉의원 현관 봉사자로 일했던 안 씨는 2008년 4월 21일 명동성당에서 치러진 선우 경식 원장 장례미사에서 “23년 동안 그렇게 원장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근수가 원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속 안 썩이며 열심히 살겠다”는 조사를 읽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셨다(《요셉의원 30년사》 274~275쪽).

### 생명 살리는데 혼신의 힘 기울여

하느님이 주신 생명은 빈부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소중하다고 믿은 선우 원장은 위중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

“언젠가 심하게 앓고 있는 가난한 노인 결핵환자를 선우 원장님께 데려간 적이 있어요. 거의 밤 9시가 다 되어서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이었지요. 원장님은 환자를 보더니 이 사람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결핵병원에 입원시켜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환자에게 경찰이나 병원 직원이 물으면 이름도 주소도 모른다고 하라는 교육을 여러 번 시키고는 밤늦게 멀리 떨어져있는 결핵병원 근처까지 차로 데려다 놓았죠.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어 누가 쓰러져 있는 것 같으니 빨리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119 요원들이 가서 보고는 신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급한 대로 인근 결핵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선우 원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가장 빨리 의료진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심혈을 기울였다. 칼라 수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정말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선우 원장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요셉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어서 입원실이 없고 큰 수술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수술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게 된다. 선우 원장은 특히 수술 등을 받아야 할 환자들을 가톨릭 의료원이나 시립병원 등에서 잘 받아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같은 가톨릭 계통인 서울성모병원이나 여의도성모병원 사회사업과와 연계해 전화로 계속 부탁을 하곤 했다.



본원 선우 원장을 비롯한 운영팀이 한센인 정착촌인 전북 고창 동혜 마을로 피정을 가서 현지 운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사진 뒷줄 맨 오른쪽이 선우 원장, 그 왼쪽 옆이 강칼라 수녀, 아랫줄 맨 왼쪽이 현재의 윤은숙 환자상담팀장, 오른쪽 옆이 김태은 치과팀장(2004년 11월 5일).

선우 원장은 지금과 달리 일부 대형 병원 사회사업 담당자가 마을을 열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는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

“기왕 환자를 받아줄 거면 힘없는 환자를 울리고 마음 아프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직접 찾아가 설명도 하시면서 애를 쓰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 후원품 들어오면 관대하게 나눔

선우 원장은 자신이나 직원들의 봉급은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돈이나 물품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나눔을 했다. 본원 근처에 칼라 수녀가 소속된 ‘예수의 작은 자매 관상선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이 있었다. 이 공부방은 영등포역 부근 결혼 가정 자녀들을 모아 식사와 간식도 주고 공부를 시켰다. 수녀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한 물품이 모자랐고, 선우 원장은 이곳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쌀을 비롯한 후원 물품이 병원에 들어오면 저희 공부방에 연락해서 일부를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자주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요셉의원도 어려운 환자가 많이 오고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셨지요. 직원이나 봉사자들도 선우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똑같이 나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주위에 새로운 환자가 생기면 거의 요셉의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도록 했다. 퇴근 무렵 밤 늦은 때라도 선우 원

장은 싫은 내색 없이 항상 잘 봐 주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칼라 수녀를 보고 “수녀님이 우리 병원의 은인입니다. 환자 떨어질까 싶어 걱정했는데 그럴 때마다 데리고 오셔서요”라며 우스갯 소리를 했다.

선우 원장은 요셉의원 개원 후 내원 환자만이 아니라 진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방의 복지시설에도 후일을 이용해 일반 및 치과 의료진을 이끌고 의료봉사를 나갔다. 전남 장성의 ‘성진원’과 영광의 ‘영민농원’, 경북 성주의 ‘평화농장’을 비롯해 전북 고창의 한

센인 정착촌인 동혜원(후에 호암 마을로 개칭) 등이 그곳이다.

본원 ‘30년사’에 따르면, 1991년 6월 첫 진료를 나갔던 고창 동혜원에서는 몇 년 뒤 호암초등학교 분교에 다니는 학생 16명과 학부모 가족들을 초청해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다. 당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선우 원장은 자신의 집과 간호사 및 후원자들의 집에 방문단의 잠자리를 마련하고, 용인 에버랜드와 63빌딩 수족관 및 전망대, 명동성당 등을 둘러보도록 했다. 칼라 수녀는 “선우 원장은 무엇을 하든 철저한 면이 있어서 방문단이 김수환 추기경을 접견토록 하는 등 신앙적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바쁜 생활 중에도 기도생활 열심

선우 원장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봤던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몰입했던 점이 선우 원장에게 힘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선우 원장과 칼라 수녀는 함께 ‘사막의 은수자’로 불리는 프랑스 샤를 드 푸코 신부의 영성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적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의대 재학 시절 사제의 길로 방향을 바꾸려 했던 선우 원장은 요셉의원 개원 전부터 ‘예수의 작은 형제회’ 재속회원으로서 돈독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칼라 수녀는 “선우 원장은 밤 9시쯤 모든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길음동 집으로 퇴근하면 지치고 힘들 텐데도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침에도 그랬다. 선우 원장은 집에서 일어나면 벽장에 모셔놓은 성상 앞에서 큰 절을 하며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는 어머니의 말을 여동생이 전한 바 있다.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즐길 줄 알아

카리스마 넘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선우 원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유머 감각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그런 유머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 술 한 잔 마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좋아했으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시작하고부터는 술 한 잔 입에 댄 적이 없다고 주위 사람들은 기억한다.

“대체로 일이 많고 너무 지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어진 것을 즐기거나 누릴 줄 모르잖아요. 선우 원장은 그러나 식사도 즐겁게 하고 주어진 작은 환경들을 누릴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병원 개원 기념일에 봉사자들의 노고에 보답할 겸 봉사자들과 가까운 곳에 소풍을 가서 연극도 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도 그런 성격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선우경식 초대원장 14주기 추모미사 강론



## “우리 시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작은 예수’”

.....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 기적이요, 또 소리소문없이 계속 이어지는 후원자분들의 후원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또 다른 선우경식 요셉님이요, 또 다른 ‘작은 예수님’들이십니다.  
.....

### | 흥근표 신부 |

오늘은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의 선종 14주기입니다. 마침 어제가 바로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고, 따라서 오늘은 부활 팔일 축제일 가운데 둘째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은 언제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다 함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본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의 낮은 자리로, 곧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도 세상 임금으로 오시지 않



칼라 수녀는 “우리도 선우 원장의 발자취를 따라 노력한다면, 선우 원장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을 위해 20여 년 동안 모든 것을 던졌던 선우 원장은 2008년 4월 18일 위암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부 뇌출혈로 선종했다. 칼라 수녀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말씀을 안

하셔서 암인 줄 몰랐다면 몹시 가슴 아파하셨는데, 본인도 위암 선고를 받고 투병할 때는 병을 묵묵히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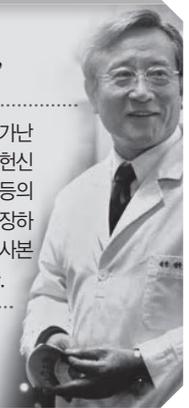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신 선우 원장님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분이셨지요. 우리도 선우 원장님의 발자취를 따라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

♥ 알려드립니다

‘선우경식 선생의 유품을 찾습니다’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 기념사업 준비팀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선우 선생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생전에 남기신 유품과 편지 등의 각종 기록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선우 선생 관련 기록물이나 유품들의 원본 혹은 사본을 기증해 주시면 기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 락 처 : 02-2634-1760(내선 258, 251)  
 보내주실 곳 : (0730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선우 선생 자료수집 TFT'



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마굿간에서 나실 정도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외면당하던 죄인들과 병자들과 소외된 이들 편에 계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면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앞을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서며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면서, 당신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를 실제 당신 삶 속에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늘 낮은 자세로 살며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도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서 당신을 따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섰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허망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크게 실망하면서, 고향

으로 다시 돌아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바로 당신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자로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전하며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증거하다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것처럼 목숨 바쳐 예수님처럼 살고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확고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2천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사도들의 삶의 이야기

기를 우리는 매년 반복해서 복음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2천년 전에 사셨다가 죽으신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사도들처럼 또다시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셨던 분이 바로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입니다.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의사로서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 곁으로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 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의 선종 14주기에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입니다.”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이야말로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 준, 그야말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사셨던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미 14년 전에 우리들 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떠나 가셨지만, 그분에 뒤를 이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이곳 요셉의원으로 모여와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요셉의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매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그 기적이요, 또 소리 소문없이 계속 이어지는 후원자분들의 후원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또 다른 선우경식 요셉님이요, 또 다른 ‘작은 예수님’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체험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시어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의 열이 분명 우리들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 모두 그 누구보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선우 경식 요셉 선생님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

## 쪽방촌 향기

### “웃음과 기쁨이 머무는 진료의 장 되기를”

30여년 전, 선무원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밑받침 되어 수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분들에 의해 요셉의원이 이어져 온 것처럼, 이젠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웃음이 머무는 시끌시끌한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원

본원 내과봉사의

하루 종일 햇살이 좋았던 일요일 오후, 살랑이는 봄바람에 벚꽃 잎이 눈이 되어 흩날리는 거리를 지나 도착한 성당에서, 주님 수난 성지주일 복음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들었습니다. 꽃송이들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수난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을 준비하는 성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서른이 되어 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공부를 하는 동안 쉽지만은 않았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긴 수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주보에서 의료진을 기다리는 요셉의원 소식을 보게 되었고, 퇴근

후 찾아간 영등포역 옆 골목이, 저와 요셉의원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한 봉사였습니다. 학생 때 진료 보조로 참여했던 라파엘 클리닉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인 환자와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꼼꼼하게 진료를 보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요셉의원을 찾아온 환자분과 처음에는 3분 이상 함께 대화를 하며 진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새 이런 저런 안부를 물으며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진료를 보기 때문에 환자 한 분, 한 분을 지속적으로 챙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의원과 함께 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익숙해지는 단골 환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 봉사의 선생님들이 기록한 정겨운 손 글씨 의무 기록은, 처음 보는 환자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어느 날 감기 증상, 복통 혹은 다른 증상을 호소하면 마음이 덜컥하기도 하고, 별 탈 없이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곤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는 동안에도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요셉의원 직원 및 봉사자 분들과 환자분들 간의 대화는 저를 슬며시 미소 짓게 합니다. 진료를 끝내고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간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고통으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여년 전, 선무원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밑받침 되어 수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분들에 의해 요셉의원이 이어져 온 것처럼, 이젠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웃음이 머무는 시끌시끌한 나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찬란하기를 기도해봅니다. 아멘. +



## 선우 선생 14주기, 묘소 참배와 미사 봉헌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 선종 14주기를 맞아 본원 임직원은 4월 18일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에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오전 홍근표 신부와 민광한 수녀를 비롯한 직원과 봉사자 9명은 경기도 양주군 울대리 묘소를 찾아 연도를 올리고, 선생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홍 신부는 본원 3층 경당에서 집전한 추모미사에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분 중 한 분이 바로 선우 경식 요셉 선생”이라고 강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 선우 선생의



열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정신을 흔들림 없이 함께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 사제수품 60주년 맞은 이문주 2대 원장신부 축하

초대 선우 경식 원장의 뒤를 이어 제2대 본원 원장을 맡아 헌신한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가 올해로 사제수품 60주년(회경축)을 맞았다.

본원 홍근표 신부와 신완식 의무원장, 민광한 수녀(사회사업실장), 박상욱 행정지원실장은 4월 12일 오후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을 찾아 축하 인사와 함께 요셉의원 가족들의 영적, 물질 선물을 전달했다. 이 신부가 창립을 주도하고 지도신부로서 운영을 도왔던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 서정숙 회장과 김민중 봉사자, 신지수 총무도 꽃다발과 축하 카드를 전하며 정성



사진 왼쪽부터 신완식 의무원장, 홍근표 신부,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 민광한 수녀

어린 축하를 보냈다. 이 신부는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하고, “요셉의원과 국성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위례성모승천 성당 주일학교 후원금 전달

서울 위례성모승천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션 빙고 게임을 해 거기서 나온 수익금과 학



부모들이 모은 돈을 합한 342만원을 본원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당시 성당 주일학교를 담당했던 송정섭 신부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는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잘 호응해 주셨다”고 말했다. 주일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김원실(레지나) 씨는 “지난 연말에 요셉의원 활동을 담은 TV 다큐를 본 학부모들이 후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

에 마침 신부님의 제안을 듣고 흔쾌히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 가톨릭 평화방송 · 평화신문 '사랑의 밀키트 나눔행사'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CPBC) 조정래 사장 신부와 임직원 30여 명이 본원 직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에게 빵과 라면 등으로 구성된 밀키트 세트 300개를 전달했다.

조정래 사장 신부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자그마한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CPBC) 측은 이번 행사 후 본원에 별도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 봉사자 코너

### 배강우 현관 봉사자

“봉사하는 아빠의 모습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배강우 봉사자(51)는 업무가 없는 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원에서 현관 안내 업무를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본원과 인연을 맺은 그는 자원 봉사를 시작한 계기가 약간 색다르다.

“군에서 제대해 일자리를 찾던 중 TV에서 요셉의원을 소개하는 프로를 봤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한 간호봉사자 말이, 자기 집이 용인인데 병원 일 끝나고 저녁 늦게 영등포에 있는 요셉의원에 봉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취직하면 언젠가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원 현관에서 하는 일은 진료 안내를 비롯해 방문 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원하는 이들에게는 새 내의나 계절에 따라 필요한 옷가지를 내어준다. 또 손 세정제나 핫팩 등의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환자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놓는다.

우편물도 받아놓아야 하므로 일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주요 업무는 진료 안내.

“진료 안내를 하다보면 좀 당황스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진료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정해진 시간에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 진료가 대체로 좀 늦어지는 수가 많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 화를 내고 샷대질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의류 나눔도 그렇다. 본인은 파란색 점퍼를 좋아하는데 왜 검정색만 주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 배 봉사자는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이 투정부리는 사람과 부딪히기보다는 잘 타일러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 요셉의원에서도 가능한 한 화난 분을 잘 설득시키려 노력한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얌전하고, 오히려 처진 모습이어서 다정하게 웃어주고 자주 오시라고 인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원에서의 봉사 이외에 소아백혈병 환아를 위한 ‘꿀벌 헌혈 동아리’라는 직장 헌혈자 모임을 만들어 수시로 헌혈도 하고 있다. 또 3년 전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성인 남성노숙인 시설인 서울 은평구 은평의마을에 이발 봉사를 나가고 있다.

“언젠가 TV에서 소아암 환아들을 치료할 피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헌혈 밴드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두 44명 정도 되는데, 이중 10여 명이 적극적으로 헌혈을 합니다.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400cc 헌혈증서 129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고, 이번 5월에도 90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발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직장 선배의 권유로 시작했다. 이 선배가 요셉의원 봉사도 적극 권했다고 한다. 배 봉사자는 “선배 말씀이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면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다 보니 이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 당신이 좀 배워서 해보라고 해 1년 동안 학원에 다녔다”고 밝혔다.

배 봉사자의 멘토였던 그 선배는 이발 봉사를 나간다고 하자 이발 기구를 사주고, 요셉의원 봉사를 한다고 하니 본원에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헌혈 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자신도 연 100회 헌혈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금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헌혈이나 자원봉사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 환자스토리



## 밀바닥 생활 뒤 후원의 손길 펴는 정수용 씨

“주변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돕겠습니다”



태어나서 꾸준히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일로 삶의 질곡에 갇혀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젊어서는 마라톤 선수로, 장년이 돼서는 고속버스 등의 기사로 열심히 살았던 정수용 환자(59·가명)는 최근 6,7년 동안 생각지 못한 ‘밀바닥 생활’을 경험했다.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하고 직장을 그만둔 뒤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치아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가 없으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 얼굴 모양도 이상해져서 취직도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더군요. 하는 수 없이 시골 농촌에서 허드렛일 도와주다 서울로 올라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정 씨는 다른 노숙인으로부터 요셉의원에 가면 틀니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 2월 내원해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거쳐 4월 중순 틀니를 장착했다. 그는 “틀니를 끼니 얼굴 모양도 살아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치아마저 들뜨다 보니 오뎅 한 조각도 못 먹고 바나나도 간신히 혀로 눌러서 잘라 삼켜야 했어요. 컵라면을 부셔서 물에 말아 마시며 허기를 면했지요.”

고향에서 체육고를 다니며 마라톤을 했던 정 씨는 8년 정도 실업팀 선수로 뛰며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맛으면서 운동을 한 게 싫어’ 코치직 등을 사양하고, 운전기사로 방향을 바꿨다. 성실히 일한 덕에 화물차에서 버스로, 다시 고속버스 기사로 취업해 안정된 생활을 했다. 친지의 소개를 받아 나이 마흔에 20대 아내와 결

혼도 했다. 그런데 아내의 ‘지나친 신앙심’이 화근이었다.

“아내가 커피숍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법 돈을 많이 들여 가게를 열었는데, 친정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몰래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가게 일도 상당 부분을 종업원에게 맡기고 교회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커피숍이 잘 될 리가 없었지요.”

딸 하나를 둔 이들 부부는 결국 갈라섰다. 아내가 딸을 키우겠다고 살던 아파트를 달라고 해 명의를 딸 앞으로 해서 넘겨주었다. 몸 담고 있던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이혼한 전력이 있는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직장도 없었다.

“화가 치솟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떠돌다보니 주어진 그릇대로 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 전 주위 사람들로 부터 운전을 오래 했으니 대리운전을 해보라는 말을 듣고 다행히 일자리를 구해 지금은 고시원을 벗어나 뜨거운 물이 나오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생활을 할 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그는, 요즘도 라디오에서 불우 환자 돕기 캠페인을 하면 전화를 눌러 후원을 한다고 말했다. 본원에도 매달 5만원 씩 기부를 하고 있는 그에게 ‘액수가 많지 않냐’고 묻자, “10만 원을 목표로 길게 후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제가 직장도 구하고 틀니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수입이 좀 더 안정화되면 전세도 얻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 후원의 손길



## 사회적 소명 중시했던 고 이용복 씨의 가족

“가장 잃은 슬픔,  
고인 뜻 따른 후원으로 달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곤 한다. 고 이용복 씨(61) 가족도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고인은 지난해 말 백신을 맞고 갑자기 심장에 흉통이 생



겨 지난 1월 초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이 평소 사회적 소명을 중시하던 고인의 뜻을 기려 200만 원을 본원에 기탁했다.

“남편은 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나같은 사람은 받으면 안되고 그 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목재 관련 공장을 운영하던 고인은 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려 노력했고, 장애인 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등 기회가 있으면 좋은 일에 마음을 보태려고 했다.

이들 가족은 TV에서 본원의 활동을 담은 다큐프로를 보고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20여 일 전 함께 요셉의원 다큐 프로를 봤습니다. 설립자이신 선우 원장님이나 지금 일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해 퇴근하고 저녁 때 와서 다시 진료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 모습을 보고 남편이 엄청 감동하더군요.”

아내 문 씨는 “전에 이태석 신부님 얘기를 다룬 ‘울지마 톤즈’도 같이 봤다”며, “가족들이 모여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직접 가서 저렇게 봉사는 못하지만 기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건강했던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아내와 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다 두 딸이 ‘기부를 통해서 아빠의 뜻을 이어가며 슬픔을 잊자’고 제안했고, 기부처를 물색하다 요셉의원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각박하기만 한 세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옷도 주고 간식도 챙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가장의 죽음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동참하면서 남편의 삶의 태도와 정신을 이어가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2년 2월~3월)

- CHUNGGJANE Euisun Pyun ● kim David ● KIMDOHYUN ● LIMYOUNGAH ● Suh Sungjae ● 강다원 ● 강명우 ● 강산나래 ● 강소희
- 강순조 ● 강연주 ● 강영숙 ● 강은경 ● 강인선 ● 강인옥 ● 강점호 ● 강철중 ● 강태발 ● 강혜경 ● 고남희 ● 고재일 ● 고희영 ● 공미연
- 구민아 ● 구영우 ● 구윤서 ● 구지영 ● 구태영 ● 국민주 ● 권남호 ● 권도희 ● 권미경 ● 권선교 ● 권수영 ● 권애령 ● 권영현 ● 권윤정
- 권은경 ● 권춘미 ● 권현숙 ● 그때까지 ● 김가빈 ● 김가윤 ● 김감영 ● 김경남 ● 김경선 ● 김경수 ● 김경숙 ● 김경은 ● 김경재 ● 김경진
- 김경훈 ● 김경희 ● 김기소 ● 김기환 ● 김남지 ● 김남호 ● 김다빈 ● 김대천 ● 김대희 ● 김동빈 ● 김동현 ● 김동훈 ● 김두경 ● 김두자
- 김리예 ● 김명진 ● 김명철 ● 김미리 ● 김미진 ● 김민영 ● 김민정 ● 김민준 ● 김병수 ● 김병희 ● 김보민 ● 김보성 ● 김봉휘 ● 김서현
- 김선경 ● 김선경 ● 김선미 ● 김선호 ● 김선희 ● 김성광 ● 김성구 ● 김성국 ● 김성민 ● 김성숙 ● 김성은 ● 김성은 ● 김성재 ● 김성주
- 김세호 ● 김소연 ● 김소연 ● 김수미 ● 김수열 ● 김수정 ● 김수정 ● 김수희 ● 김수희 ● 김숙금 ● 김숙녀 ● 김숙현 ● 김순영 ● 김슬기
- 김승규 ● 김승민 ● 김승아 ● 김승애 ● 김승현 ● 김시내 ● 김아람 ● 김양우 ● 김연경 ● 김영경 ● 김영란 ● 김영미 ● 김영숙 ● 김영식
- 김영희 ● 김예정 ● 김예진 ● 김오경 ● 김옥선 ● 김옥순 ● 김용애 ● 김용제 ● 김우종 ● 김원미 ● 김유경 ● 김윤정 ● 김은래 ● 김은민
- 김은영 ● 김은영 ● 김은표 ● 김은하 ● 김이삭 ● 김인애 ● 김재석 ● 김재영 ● 김정구 ● 김정길 ● 김정란 ● 김정미 ● 김정연 ● 김정옥
- 김종휘 ● 김준석 ● 김지윤 ● 김지윤 ● 김지은 ● 김지향 ● 김지호 ● 김진국 ● 김진규 ● 김진아 ● 김채린 ● 김천호 ● 김청자 ● 김충숙
- 김치경 ● 김철성 ● 김태연 ● 김태진 ● 김태호 ● 김태환 ● 김풍성 ● 김필상 ● 김현식 ● 김현연 ● 김현영 ● 김현정 ● 김현정 ● 김현주
- 김현지 ● 김현진 ● 김혜림 ● 김혜숙 ● 김혜정 ● 김혜지 ● 김혜현 ● 김호경 ● 김호숙 ● 김호진 ● 김홍길 ● 김효정 ● 김효주 ● 김효진
- 김희경 ● 김희영 ● 나덕균 ● 나승철 ● 나현진 ● 남미선 ● 남민주 ● 남 자 ● 남태심 ● 남형석 ● 노경아 ● 노방실 ● 노영옥 ● 노태경
- 노희선 ● 쟈 마 ● 도은경 ● 류은솔 ● 류정수 ● 마서경 ● 마송희 ● 문라임 ● 문선미 ● 문선진 ● 문성원 ● 문영희 ● 문요한 ● 문준서
- 문지성 ● 문현화 ● 문혜영 ● 민병석 ● 민유정 ● 민윤선 ● 민현기 ● 민효숙 ● 박가람 ● 박경숙 ● 박경원 ● 박금희 ● 박도선 ● 박미니
- 박미연 ● 박미자 ● 박미주1297 ● 박민설 ● 박민지 ● 박병록 ● 박부배 ● 박상일 ● 박새연 ● 박선영 ● 박세린 ● 박소연 ● 박수미
- 박순용 ● 박슬기 ● 박승월 ● 박시경 ● 박연화 ● 박영덕마리안나 ● 박영숙 ● 박영주 ● 박용길 ● 박용운 ● 박운석 ● 박원재 ● 박원철

● 박유라 ● 박윤진 ● 박은실 ● 박장윤 ● 박재성 ● 박정원 ● 박정하 ● 박정현 ● 박종성 ● 박지영 ● 박지은 ● 박지현 ● 박진경 ● 박진아  
 ● 박천두 ● 박헌동 ● 박현경 ● 박현숙 ● 박현진 ● 박혜영 ● 박희선 ● 반기호 ● 방경희 ● 방기성 ● 방신한 ● 방은영 ● 방현선 ● 배유진  
 ● 배익식 ● 배종두 ● 백향선 ● 변상태 ● 빈 ● 서경자 ● 서경호 ● 서경희 ● 서동희 ● 서문랑 ● 서미란 ● 서민구 ● 서복남 ● 서양자  
 ● 서영식 ● 서예린 ● 서점동 ● 서지영 ● 서창진 ● 선지현 ● 손미정 ● 손병학 ● 손영남 ● 손운정 ● 손유정 ● 손정아 ● 손정인 ● 손혜진  
 ● 송경남 ● 송경희 ● 송미경 ● 송선경 ● 송영아 ● 송영은 ● 송예준 ● 송재광 ● 송정현 ● 송주영 ● 신대희 ● 신동우 ● 신동학 ● 신문영  
 ● 신마혜 ● 신서우 ● 신애숙 ● 신은주 ● 신은혜 ● 신장철 ● 신현수 ● 신혜린 ● 심승섭 ● 심유진 ● 심윤선 ● 심재훈 ● 심혜영 ● 심 화  
 ● 안경환 ● 안나래 ● 안명숙 ● 안성빈(루치아노) ● 안성필 ● 안수진 ● 안유진 ● 안음전 ● 안이주 ● 안인옥 ● 안정순 ● 안정현 ● 안초희  
 ● 양미희 ● 양선진 ● 양소연 ● 양예주 ● 양예진 ● 양지은 ● 여용직 ● 연광흠 ● 연진경 ● 염혜윤 ● 오른손이한일은왼손이모르게 ● 오상선  
 ● 오세라 ● 오시나 ● 오아원 ● 오영애 ● 오윤선 ● 오유주 ● 오 율 ● 오 익 ● 오정민 ● 오정오 ● 오정화 ● 오종명 ● 오철희 ● 오현경  
 ● 오혜민 ● 왕수령 ● 우영신 ● 우정미 ● 원연순 ● 원용안 ● 유민채 ● 유보람 ● 유상화 ● 유석영 ● 유세양 ● 유은하 ● 유재인 ● 유정민  
 ● 유정빈 ● 유정희 ● 유지민 ● 유지현 ● 유지근 ● 유해경 ● 윤가영 ● 윤기환 ● 윤미애 ● 윤숙희 ● 윤연경 ● 윤은지 ● 윤정덕 ● 윤정숙  
 ● 윤지수 ● 윤지영 ● 윤진선 ● 윤현지 ● 이강인 ● 이경선 ● 이경해 ● 이광일 ● 이권비 ● 이기연 ● 이나라 ● 이남숙 ● 이누리 ● 이눈솔  
 ● 이다정 ● 이도현 ● 이도환 ● 이도희 ● 이두진 ● 이면주 ● 이미란 ● 이미란 ● 이미숙 ● 이미영 ● 이미희 ● 이민하 ● 이복득 ● 이삼미  
 ● 이상락 ● 이상준 ● 이상호 ● 이선영 ● 이선윤 ● 이선희 ● 이설희 ● 이성옥 ● 이성일 ● 이세영 ● 이소래 ● 이송희 ● 이수정 ● 이수진  
 ● 이승기 ● 이승찬 ● 이승빈 ● 이승순 ● 이승재 ● 이승훈 ● 이시화 ● 이안림 ● 이영경 ● 이영미 ● 이영미 ● 이영미 ● 이옥주 ● 이용인  
 ● 이원정 ● 이유정 ● 이유진 ● 이은솔 ● 이은숙 ● 이은재 ● 이은정 ● 이은지 ● 이응순 ● 이인혜 ● 이임숙 ● 이재갑 ● 이재형 ● 이정숙  
 ● 이정아 ● 이정애 ● 이정연 ● 이정인 ● 이정현 ● 이정훈 ● 이종령 ● 이종수 ● 이종태 ● 이주은 ● 이주철 ● 이주형 ● 이준성 ● 이종택  
 ● 이중호 ● 이지안 ● 이지영 ● 이지현 ● 이지현 ● 이지현 ● 이 진 ● 이진석 ● 이진실 ● 이찬은 ● 이창직 ● 이창호 ● 이한솔 ● 이항미  
 ● 이현식 ● 이현주 ● 이혜린 ● 이혜숙 ● 이혜진 ● 이호철 ● 이흥열 ● 이황희 ● 이희숙 ● 인태환 ● 임기홍 ● 임동은 ● 임명자 ● 임미애  
 ● 임민정 ● 임선경 ● 임선미 ● 임순영 ● 임연종 ● 임완식 ● 임유정 ● 임은숙 ● 임지연 ● 임지은 ● 임찬민 ● 임현숙 ● 장경미 ● 장미향  
 ● 장아툼아롱 ● 장정애 ● 장정인 ● 장정혜 ● 장정화 ● 장혜정 ● 전경태 ● 전경환 ● 전미선 ● 전선영 ● 전성미 ● 전성숙 ● 전성우  
 ● 전인화 ● 전일정 ● 전현정 ● 전효진 ● 정규훈 ● 정로사 ● 정명선 ● 정미경 ● 정미숙헬레나 ● 정봉권 ● 정상덕 ● 정성희 ● 정수영  
 ● 정승복 ● 정승아 ● 정승엽 ● 정연주 ● 정연화 ● 정유진 ● 정윤주 ● 정은숙 ● 정의창 ● 정인성 ● 정인하 ● 정자영 ● 정재훈 ● 정지연  
 ● 정진희 ● 정하연 ● 정해련 ● 정현돌 ● 정현진 ● 정현진 ● 정혜미 ● 정호진 ● 정희진 ● 정효균 ● 정효민 ● 조경순 ● 조길림 ● 조미연  
 ● 조미현 ● 조선아 ● 조성숙 ● 조성재 ● 조아혜 ● 조영선 ● 조예람 ● 조용현 ● 조유진 ● 조은별 ● 조충환 ● 조현아 ● 조현아 ● 조현이  
 ● 조형일 ● 주성신 ● 박성숙 ● 지선애 ● 진선영 ● 진은미 ● 차지영 ● 채성희 ● 채송중 ● 천학도 ● 최강물 ● 최경승 ● 최경숙 ● 최경일  
 ● 최고운 ● 최다희 ● 최명화 ● 최상숙 ● 최선아 ● 최선희 ● 최성우 ● 최 순 ● 최아영 ● 최연지 ● 최연화 ● 최예림 ● 최요셉 ● 최요숙  
 ● 최용석 ● 최 웅 ● 최원준 ● 최유림 ● 최윤준 ● 최은옥 ● 최익훈 ● 최인서 ● 최재준 ● 최정현 ● 최정화 ● 최정희 ● 최준이 ● 최종도  
 ● 최지영 ● 최지원 ● 최현주 ● 최현진 ● 최혜란 ● 최혜인 ● 최화순 ● 최효영 ● 최희선 ● 최희욱 ● 추성희 ● 표준연 ● 하늬하영 ● 한상기  
 ● 한성농 ● 한송이 ● 한송희 ● 한수미 ● 한옥주 ● 한유진 ● 한정주 ● 한정희 ● 함석필 ● 함수연 ● 함영주 ● 함은혜 ● 허고은 ● 허정란  
 ● 홍금순 ● 홍서경 ● 홍성우 ● 홍성태 ● 홍승준 ● 홍아영 ● 홍지연 ● 홍지현 ● 황규석 ● 황돈호 ● 황성준 ● 황소영 ● 황윤진 ● 황윤희  
 ● 황은하 ● 황지원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 (2022년 2월~3월)

● (주)구로축기 ● (주)아트종합상사 ● EIE 고양삼승캠퍼스 ● 강창구 찹쌀진순대 가산점 ● 개봉동성당빈첸시오 ● 그린미술교육연구소  
 ● 빅트리월드(bigtreeworld) ● 서울아산가정의학과의원 ● 수원성교회청년 ● 순복음예수사랑교회 ●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 울긋즈컴퍼니 ● 태우산업 ● 푸른우리교회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2년 2월~3월)

● 김\*정 : 빵 100개, बे지밀 112개 ● 김현미 : 사과 1상자, 시래기 3봉지, 과일즙 1상자 ● 음성군농협쌀조합 : 쌀 20kg ● 이승찬 신부 :  
 떡 2상자 ● 이현주 : 쌀 10kg ● 이현주 : 쌀 10kg ● 이혜란 : 한라봉 5kg ● 익명 : 떡 1상자, 쌀 20kg, 초코파이(12통) 1상자, 아몬드  
 두유 6상자 ● 정진철 : 쌀 10kg ● 착한과일 : 한라봉 4상자 ● 최\*운 : ABC주스 6상자 ● 최명희 : 배즙 120개 ● 피스오브헤븐 : 쿠키,  
 빵 1상자 ● 허\*숙 : 건강식품(하모닐란 110팩) 5상자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2년 2월~3월)

●가톨릭대사목부신부 : 여성용 신발 9켤레, 의류 1상자 ●강차경 미카엘라 : 의류 1상자 ●강혜원 : 옷, 양말, 모자, 장갑, 담요 등 2상자 ●강혜진 : 옷 1상자 ●곽정미 : 옷 1상자 ●권혁준 신부님 : 의류 4상자, 스타킹 1상자 ●김\*성 : 신발 3켤레 ●김\*수 : 신발 1켤레 ●김\*숙 : 옷 1상자 ●김\*정 : 의류 1상자 ●김건환 : 옷 2상자 ●김건자 : 의류 1상자 ●김나경 : 옷 1상자 ●김남호 : 옷 1상자 ●김명은 : 옷 5상자 ●김시완 · 김경식 : 양말 50켤레 ●김형준 사도요한 : 의류 5상자, 신발 2상자 7상자 ●김효정 : 옷 1상자 ●노동윤 : 옷 1상자 ●다니엘 : 의류 2상자 ●돈암동성당 : 옷 2상자 ●두리섬유 : 양말 85족 ●목5동성당 : 옷 6상자, 신발 100켤레, 우산 2개 ●문영애 : 의류 1상자 ●민수정 : 옷 2상자 ●밀양보경사 : 의류 및 생활용품 1상자 ●박\*호 : 옷 1상자, 신발 7켤레, 모자 10개 ●박부신 : 양말 1000켤레(여성용 500켤레, 남성용 500켤레) ●박은경 : 옷(마스크 20장 포함) 2상자 ●박현\* : 의류 1상자 ●박현아 : 옷 1상자 ●백현\* : 옷 1상자 ●서동희 : 코트 1벌 ●서상훈 : 옷 2상자 ●석관동성당 : 의류 11상자, 신발 1상자 ●송\*달 : 신발 1켤레 ●신을주 : 옷, 장갑, 비누 등 4상자 ●아비엔도 : 양말 50켤레 ●안\*남 : 의류 1상자 ●안은미 : 옷 1상자 ●왕계도 : 양말 30켤레 ●유영란 : 옷 1상자 ●윤영숙 : 옷 1상자 ●이\*심 : 옷 1상자 ●이선숙 : 옷, 신발, 저금통 등 1상자 ●익명 : 옷 4상자, 팬티 48장 ●임홍열 : 옷 1상자 ●전\*자 : 옷 1상자 ●조현아 : 옷 2상자 ●최\*경 : 의류 1상자 ●홍하나 : 구두 1켤레 ●황\*영 : 의류 1상자



###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2월~3월)

●권혁준 신부 : 휠체어 1대 ●비타민엔젤스 : 나눔비타외 1종 ●상동복지회관 : 애시칸 정 ●이기주 : 파스(30매) 40통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25종 ●한미약품 : 한미오메카3맥스 외 3종 ●한철원 : 시네츄라 시럽 외 12종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2년 2월~3월)

●가톨릭대사목부신부 : 마스크 900장 ●김\*성 : 마스크(KF94 110장, 비말 방지 20장, 멸균가제 2통) 1상자 ●김\*성 : 마스크 294장 ●김남호 : 마스크 300장 ●김용환 : 마스크 목걸이 6상자 ●박은경 : 토스터기 1대 ●배관랜드 : KF94 마스크 900장 ●석관동 성당 생필품1상자 ●영등포우체국 : 치약, 비누샴푸 2상자, 롤백 1상자 ●익명 : 마스크 10장, 미니삼푸 5, 화장품 1상자 ●푸름웰리스 : 마스크 1000장



#### ♥ 의류 후원 안내

본원에 항상 정성어린 후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류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의류나 이불 등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할 공간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의류나 이불 등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 02-2634-1760 (통화 가능 시간 평일 오후 1시~8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본원 인사

- 사회사업실 : 사회사업실장 민광한Sr.
- 행정지원실 : 재무회계팀 이상선
- 선우경식 기념사업 자료수집 TFT(위촉)
  - 총괄팀장 : 황 돈
  - 팀 장 : 김병희
  - 팀 원 : 민광한Sr · 윤은숙 · 한동호  
민영진 · 정운식 · 김재근  
박상욱 · 이승덕 · 홍정우

####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현민숙 · 추원호(내과)  
이윤지 · 오회진(치과)
- 약 사 : 이설혜 · 홍은주 · 유남희  
지익환
- 간호사 : 이지연 · 전금숙
- 방사선사 : 김근태 · 손승빈
- 일반봉사 : 김강유 · 김희철 · 남소은  
박효경 · 백다슬 · 백시연  
이예은
- 신학생 현장체험
  - 서울대학교 : 홍진우 사도요한 (3.14~6.29)
  - 대전 교구 : 한상록 마태오 (3.14~6.29)
  - 전주 교구 : 오의창 가브리엘 (3.21~4.29)
  - 인천 교구 : 이현우 마르코 (4.4~6.29)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노직자 ●서울대학교 빈첸시오회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천주섭리 나눔의 집 ●토마스의 집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2년 2월	908 명
2022년 3월	943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3월 말 현재)

718,663 명



##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2022.3~2022.4



장경근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 필리핀 요셉의원장 8월 이취임 앞두고 인수인계 시작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찾아봐야죠”



장경근 원장신부(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신임 김다솔 부원장 신부(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필리핀 요셉의원 운영팀과 자리를 함께 했다. 앞줄 가운데는 개원 초부터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에블린 박사(소아과).

지난 6년6개월 동안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 신부로서 필리핀 마닐라 말라본 시 빈민들에게 의료와 생활지원을 하고 어린이 급식과 장학사업 등에 매진해온 장경근 신부가 신임 김다솔 부원장 신부에게 업무를 인계할 예정이다. 신임 김신부의 인사말과 함께 장 신부의 '헌신과 보람'에 대한 소회를 들어본다.



지난 2015년 10월 필리핀 요셉의원 제2대 원장으로 부임해 마닐라 말라본 시 도시빈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장경근(안드레아) 신부가 오는 8월 퇴임하고, 그에 앞서 김다솔(야고보) 신부가 3월 중순 부원장으로 부임해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원장신부는 필리핀 요셉의원을 개원한

고 최영식(마티아) 신부의 뒤를 이어 지난 6년 6개월 동안 주민 진료와 어린이가 무료 급식,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덧붙여 식료품 지원사업과 집짓기 사업을 새로 추진했다. 장 신부의 이런 노력 덕분에 필리핀 요셉의원은 말라본 시 '빈민의 빛'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다섯 가지 사업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의료사업으로는, 월

요일(소아과)과 목요일 오후(안과), 금요일(내과)에 정기 진료를 하고, 화·수·목요일에 온라인으로 영상 원격진료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3~9세 어린이 260여 명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고·대학생 41명에게 매달 소정의 장학금을 건네고 있다. 또 한국 후원자들의 지원 아래 생활이 어려운

가정 80세대에 매달 식료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계획으로 연간 44채의 새집을 지어주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 신부는 향후 과제로서 “의료에서는 중증 환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람들이 병을 키워서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 그 전에 이런 환자들을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식소 상황도 비슷하다. 정작 부모가 일을 나가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은 급식소에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을 찾아서 보살펴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장 신부는 “많은 후원자 분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지만, 지난 2019년 10월 이곳 칼로칸 교구와 서울 대교구의 협의에 따라 칼로칸 교구가 필리핀 요셉의원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2의 필리핀 요셉의원이 생겨 아프고 힘겹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장 신부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곳 사람들에게 기술 전수와 교육 사업을 펼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김다솔 부원장 신부, “외국 사제 아닌 이웃으로서 하느님 사랑 나눔 터”

지난 3월 15일 필리핀 요셉의원에 합류한 김다솔 부원장신부는 한 달 여에 걸쳐 장 원장신부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하고 장 신부가 휴식을 취하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9년 2월



필리핀 요셉의원 개원 초, 클리닉의 초석을 다진 고 최영식 신부(앞줄 맨 오른쪽)가 신안식 요셉의원 의무원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장경근 신부(앞줄 맨 왼쪽), 에블린 박사를 비롯한 필리핀 요셉의원 운영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제서품을 받고 올해 2월까지 양천 성당에서 사목했던 김 부원장신부는 “외국에서 온 사제가 아닌 이곳의 이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다솔 야고보 신부입니다.

2월 인사이동으로 필리핀 요셉의원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지는 벌써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모로 적응 중입니다. 낯선 환경과 기후

뿐 아니라 이전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체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왔고, 또 사랑하기 위해 왔기에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이곳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려고 합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은 그동안 이곳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온 사제가 아닌 이곳의 이웃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복음 묵상 | 소임을 마치며

### ‘외로움과 고독과 하느님’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용어이다.

‘외로움(loneliness)’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핍을 느끼는 감정의 상태라고 한다.

사람은 자주 외로운 것 같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데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연예인들은 높은 인기 속에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리는 가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쓸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술을 찾기도 하고,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한다.

고독(solitude)은 혼자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가끔 타인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 자신만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빠졌던 기운이 다시 차오르는 경험을 한다.

한때 ‘몰입’에 대한 책들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몰입을 했을 때에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즉 이런저런 고립감에 외로워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스스로의 발전이나 만족을 위한 것에

몰입해서 고독을 즐겨라'라는 내용들이다. 말은 쉬운데 외로울 때 몰입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외로울 때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들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다.

〈고백록〉을 읽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도 끔찍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방탕한 생활 속에 짧은 시절을 보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타락은 다 해본 듯하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이 느끼는 결핍의 감정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국 하느님께 돌아선다.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은 편안치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에게서 나왔으니 창조주를 갈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 우리는 수많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크나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은 본당이 아니기에 찾아주는 신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친하게 지내던 한국 신부들도 하나둘씩 귀국을 하고, 도시 봉쇄와 통행금지로 병원 문도 못 여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자 나는 이곳에 혼자 고립되었다. 재작년 부활 밤 미사 때에는 혼자 경당에서 부활 찬송을 불렀어야 했다. 외로웠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해봤다. 드라마를 몇 십편씩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문자나 전화도 걸어보고, 영어 공부에 열중해 보기도 했다. 목재들을 사 와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뒤뜰 언뎀에서 낚싯대를 펼쳐 놓고 이 생각 저 생각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몰입'은 나랑 안 맞았다.

그러다가도 경당에 앉아서 멍하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또 기분이 좋아졌다. '주님은 내가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나 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하는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공허함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라 하겠다. 주님은 그 갈망을 통해서 당신을 찾게 만드신다.

이곳 필리핀에서 생활했던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의료팀이 찾아와서 함께 진료를 다니면서, 또한 현장 체험 나온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정들로 쉴새 없이 지내왔다. 그 때문인지 외롭다는 생각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2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와 팬데믹은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혼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어느 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는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또 물을 길으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에는 차이가 있다. 마치 우리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하느님을 향한 갈증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 여인의 외로운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갈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물이기에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마음은 자주 다른 곳에 가 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그분께서 오시면 왜 그런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긴박한 딜레마 속에서 살아간다. 하느님과 인간의 이런 긴박한 로맨스는 주님 안에 쉬기까지 계속되나 보다. 바라는 점은 인생의 후반전에는 다른 무엇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점점 갈망하게 되길 희망해 본다.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 온 지도 벌써 6년 6개월이 흘렀다.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실수도 참 많았고, 그중에는 아직도 후회되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힘든 시기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요셉의원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의사선생님들, 서울 요셉의원 가족들, 한국에서 봉사 오셨던 여러 의료팀들, 그리고 늘 신경 써주시고 염려해 주셨던 주교님과 신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은 빨리 떠나고 싶은 심정이지만 한국에 가면 이곳이 많이 그리울 것이다. +



**+ 2022년 2월 ~ 3월 신규 후원회원(11명)**

- 권미연 ● 김(하나) ● 김태환 ● 박정호 ● 서희진
- 신동선 ● 신부님 건강하세요 ● 양민식 ● 이성복 ● 주은경
- 한송희

**+ 2022년 2월 ~ 3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836명
-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259명 ● 급식 10,235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3월 현재)**

- 진료 86,174명 ● 급식 412,397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2.2~2022.3

## “파푸아뉴기니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목 중인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김윤일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신부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에라베(Erave)는 멘디(Mendi) 교구 동부 지구에 속해 있으며 1개소의 본당과 6개소의 공소가 있고, 2021년 현재 7개 공동체의 교적 수는 1,046명입니다. 동부지구 중에서 가장 끝에 위치해 있는 본당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외진 곳입니다. 본당 신자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밭을 일구어 하루 먹을 양식을 취하는 식이다 보니 금전적으로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미사 이외의 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곳 파푸아뉴기

니 지역 교회에서도 성경 구입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는 있지만 저희 같은 시골 본당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 성경을 살 돈을 모으기보다는 하루의 끼니를 이어가는 데 급급해야 하는 이곳 신자들의 현실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성경을 곁에 두고 더욱 하느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를 알게 되어 톡 피진(파푸아뉴기니 현지어) 성경 100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받은 성경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신자들을 우선하되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보급하고, 소공동체, 청년회, 복사단을 중심으로 성경 나눔과 필사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글 교실과 같은 톡 피진 교실을 열어 문맹률이 높은 장년층에게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성경을 보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김윤일 신부 드림



✉ 김윤일 신부님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국성회에서는 2021년 12월 7일 톡 피진 성경 100권(148만5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 2022년 2월 말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의 교구장 아타나시오 주교님이 국성회에 아래와 같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 모잠비크에서 온 감사편지

2019년 11월 16일~20일 사이에 열린 리칭가 교구 사목평의회에서, 예전에 절판되었던 마쿠아어 전례서 및 교리서(Masu a Muluku)와 마쿠아어 성가 및 기도서(Mavekelo ni Itxipo) 재인쇄 요청이 여러 번 거론되었습니다. 당시 교구 내에서 사목 중이던 권효준 탈시시오 신부(한국외방선교회)가 2020년 1월 국제성경사도직후원

회에 두 책의 재인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성회의 인쇄 지원은 우리 교구 전체 신자들의 마음을 비추는 커다란 빛이자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리칭가 교구 차원에서,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교구 공동체 신자들을 위해 쓰일 책들을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국성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외방선교회와 권효준 신부님을



비롯하여, 인쇄 후원자를 찾느라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꿈으로만 보던 마쿠아어 전례서와 기도서를 현실에서 직접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성탄과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국성회에서 저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이 두 책이 우리의 손에 있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uito Obrigado! Assante Sana! Koxukuro! (감사합니다의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마쿠아어 표현). 마쿠아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의 특별한 영적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회를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리칭가 교구장  
아타나시오 아미세 까니라 주교



국성회에서는 2021년 9월 8일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 신자들을 위해 모잠비크에서 선교 중인 권호준 신부님(한국외방선교회)을 통해 마쿠아어(모잠비크의 주요 민족어) 전례서와 교리서(Masu a Muluku) 1만권, 기도서와 성가집(Mavekelo ni Itxipo) 1만권 인쇄비용 1억141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쇄된 책 2만권은 2021년 10월 8일 선편으로 모잠비크에 보냈고, 12월 초 무사히 현지에도착했습니다.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2년 2월~2022년 3월)

- 강상훈 ● 고현수 ● 김금재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환 ● 김윤순 ● 김은애 ● 김진우 ● 김춘희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용식 ● 윤종구 ● 윤창현 ● 윤희정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현 ● 이신애 ● 이용애 ● 이유진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지현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현규 ● 이혜순 ● 이희자 ● 임한미 ● 장선화 ● 전대영 ● 정병옥 ● 조용덕
- 조하영 ● 조현순 ● 진석실업 ● 최두혁 ● 최명옥 ● 최문송 ● 최송원 ● 최원남 ● 하금태 ● 허영숙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2년 2월~2022년 3월)

- 김경식 ● 김동호 ● 김원호 ● 박우준 ● 박준병 ● 백성호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조성풍
- 최광희 ● 최명근 ● 최요안 ● 최정훈 ● 한정화 ● 흥인식 ● 익명 후원자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 일반 (2022년 2월~2022년 3월)

- 박은숙

2022년 2월~3월 후원금 내역 : 6,704,000원

### + 국성회 후원 방법

####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06412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요셉의원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2020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기 이용자는 별도신청없이 2021년에도 이용가능
- 요셉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신청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신청 필요 없음
- 2021년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신규신청자는 후원회에 주민번호 13자리 통보필요  
▶ 전화, 문자, 카톡 채팅 가능

**방법 2** 요셉의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요셉의원 홈페이지 Web ID가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활용
-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 홈페이지 상단 우측 '로그인' 메뉴 클릭 후 '로그인없이 납부내역조회' 메뉴 선택하여 후원자 인증 진행  
▶ '기부금 영수증 출력' 메뉴 선택

\* 관련문의 : 요셉의원 후원회 070-4688-3416 (직통전화/문자)  
카톡 아이디 : 요셉의원  
e-mail : donation@josephclinic.org / Fax 02-6919-1690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는 직통전화 070-4688-3412 로 별도 문의)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알코올의존증 상담**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넷째 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1층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